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1988년2월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50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6月 25日(日曜日) 〔1〕

내년도 어항어촌 예산안 2,190억8천만원

올보다 15.8% 증액 요구 1·3종어항에는 1,554억원

해양수산부는 2001년도 어항어촌관련 예산으로 총 2,190억8,0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이중 어항건설 예산은 1,813억5,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8% 늘어난 수준으로서 제1·3종어항은 계속공사 23개항, 유지보강 26개항에 1,554억1,400만원, 그리고 제2종어항에 225억원, 육지소규모항에 3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계속 16, 신규 22개소에 281억6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4개소, 어촌체험관광개발 5개소, 어촌휴양단지조성 5개소 등 어촌관광부문에 82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정주권의 핵심기반이 되는 어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획물의 양륙, 어선의 안전정박, 선수품보급 등을 위한 기본시설 우선투자에서, 어항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종합방식으로 방향을 전환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어항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안전진단, 정비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지보강사업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01년도 어항어촌관련 예산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요구 (B)	증(△)감 (B-A)	증(△)감 %
합 계	189,251	219,080	29,829	15.8
어 항 건 설	163,648	181,354	17,706	10.8
○제1·3종어항	142,588	155,414	12,826	9.0
-일반회계	83,000	98,894	15,894	19.1
-농특회계	59,588	56,520	△3,068	△5.4
○제2종어항	18,200	22,500	4,300	23.6
○육지소규모항	2,860	3,440	580	20.3
어 촌 개 발	19,351	28,106	8,755	45.2
○어촌종합개발사업	19,351	28,106		
어 촌 관 광	5,300	8,250	2,950	55.7
○어촌민속전시관	3,000	4,000		
○어촌체험관광개발	-	500		
○어촌휴양단지조성	2,300	3,750		
어 항 관 리	952	1,370	418	43.9

1·3종어항을 '국가어항' 2종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육지소규모항을 '정주기초어항'으로 지정

허가 승인 등 규제도 완화

어항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지소규모항을 법정어항인 '정주기초어항'으로 신설하고, 어항의 종류도 개발 및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제1종 및 제3종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제2종어항을 '지방어항'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소규모항을 어촌마을의 정주기초어항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어항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월20일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 법령정보 참고)

어항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관리하는 제1종 및 제3종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하는 제2종어항을 지방어항으로 변경하고, 어촌마을의 정주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을 정주기초어항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관리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도서지역 특화개발 본격 추진

관광자원 등 6개 유형별 육성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키 위해 관광자원형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특화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도서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키 위해 전국 도서지역을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내용의 도서발전 청사진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발전청사진에서 전국 도서지역을 관광자원형, 생태자원형, 영토전방형, 육지근접형, 군집형, 고립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특색에 맞는 개발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도서지역 특화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객선·도선운항 등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는 한편 다기능종합어항 개발등 소득증대시설을 중점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양자원개발 및 도서지역의 원격성을 해소키 위해 연륙·연도교 확충 및 연륙·연도교 자체를 관광자원화하고 도서의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거점별 도서를 선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추천키로 했다.

수산정책발전기획단 운영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 실·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수산정책발전기획단' 등 2개의 해양수산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집행의 유연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수산정책발전기획단(단장 안국전 수산정책국장)'에서는 수산부문의 정책과제 및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내부 포럼 등을 거쳐 실무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과제를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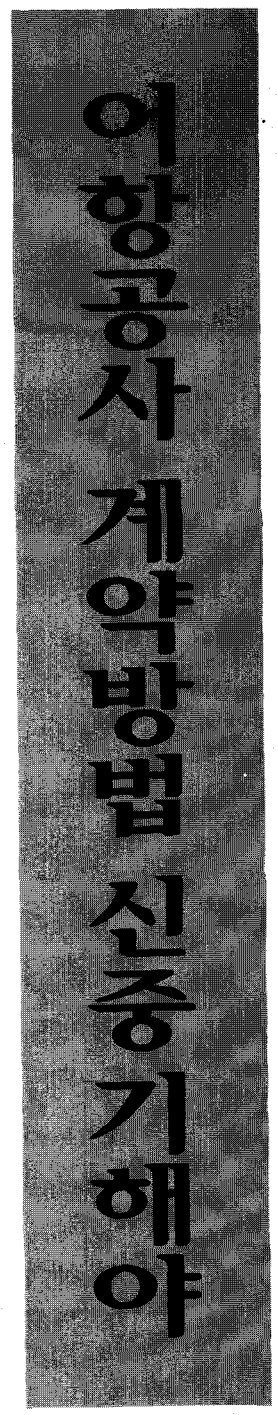
그리고 한·중어업협정의 내용과 어업협정 진척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직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한·중어업협정홍보기획단(단장 최장현 공보관)'을 구성하여 어업협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의 태스크포스를 기존의 조직체계를 벗어나 장관직보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생산성 극대화는 물론 해양수산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항공사 계약방법 신중기해야

최근 계약관계 당국에서 내년부터 어항공사의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경쟁입찰로 완전히 전환할 뜻을 밝히자 어항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한탄하고 있다.

벌써 10여년 전부터 수시로 거론됐던 어항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와 어항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계약방법 전환의 저변에 깔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인 듯 싶다.

적어도 건설공사라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 적용이 무 자르듯 그렇게 원리원칙의 잣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 이유는 비록 비슷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각자 처한 환경의 특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등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반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법 집행의 유연성과 탄력성이다. 어항공사가 바로 그런 범주에 든다. 건설공사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형태의 공사라는 뜻이다.

우선 공사기간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을 넘는다. 일본의 경우 30~40년을 끌어오고 있는 어항공사도 비일비재하다. 건물을 짓거나 길을 닦는 그런 공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를 해마다 일반 경쟁입찰에 부친다면 모르긴 해도 공사 자체보다는 오히려 낙찰을 위해 쏟는 불필요한 소모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항공사의 특수성에 있다. 어항공사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대체로 제반 여건이 열악한 낙도 벽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풍내습기나 동계공사를 피해야 하는 등 그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주체가 극단적으로 매년 바뀔 경우 하자책임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분쟁이 상존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항공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석산개발인데 다음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이와함께 진입로, 적출장, 어업보상 등 민원문제와 공사지연, 설계외의 비용부담, 시공상 능률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어항공사가 대기업 혹은 외국업체로 넘어가 평생을 어항공사에 몸바쳐 온 중소업체는 하루아침에 도산하여 결국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공사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대의명분까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실험적 단계를 거친 뒤 그 가부를 결정하자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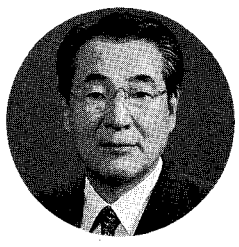
최근 사상 최악의 결과를 몰고 온 의약분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정부·국민·사업자 모두에게 쓰라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당국이 굳이 어항공사의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검증단계를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즉 새로 시작되는 신규어항공사를 우선적으로 몇 군데 지정, 다각적인 기준에 의거 단계적으로 이를 시범 실시해 본 후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한 뒤 시행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작게는 어항인과 이에 딸린 관련자들의 생계문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대명제가 걸린 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다. 이는 자칫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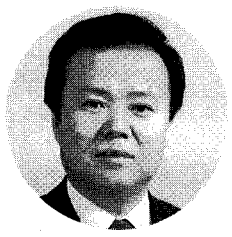
동정

국방대학원에서 '21세기 해양경영전략'을 주제로 강연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2일 동중국해 일원에서 새로운 어업협정체제에 따라 조업중인 한·중·일 3국어선들의 조업실태를 승선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격려, 3일에는 제주도 육상양식단지, 남제주 시험장, 어촌계 등 기르는어업 현장을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수산업 발전방향을 설명, 5일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개최된 '해양사고방지센타' 개소식에 참석, 15일에는 국방대학원에서 '21세기 해양경영전략'을 주제로 해양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해양화, 해양한국21의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강연.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6월1일 마약법리학회 세미나에 참석, 6일에는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참배, 13. 16일에는 해양수산부 장·차관을 예방하고 현안사항을 협의, 19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모임에 참석, 22일에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해양전략연구소 주관 세미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6월7일 본부 임직원과 함께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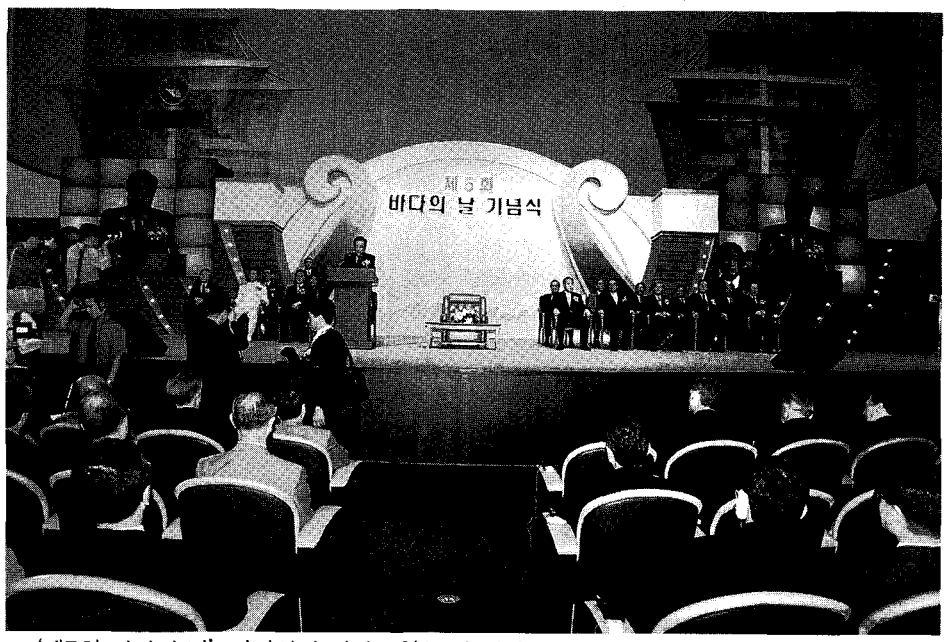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8일 제2회 향토문화연구원 심포지엄에 참석, 9일에는 성균관 제도개혁위원회에 참석, 1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년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 이어 광주국악진흥회 이사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6월5일 광주매일신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 10일에는 청소년예방선도 서화백일장 시상식에 참석, 11일에는 광주농고 총동창회를 개최, 27일에는 송원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8일 전경련 주관 중국공산당 정책위원장 초청오찬에 참석, 14일에는 주한 일본대사 초청 연찬회에 참석, 22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8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간사회의를 개최,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8일 자회사인 광주타임즈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심양일보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협의, 9일에는 매송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 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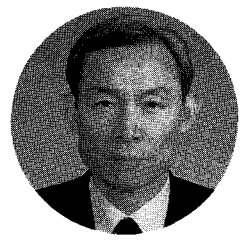


■ '제5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월31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를 비롯, 신상우 초대 해양수산부장관 등 1천 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회원가입

▲건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김금화)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훈리 12-6번지, 전화번호 : (062) 232-5562~3

인사



金成洙 해양수산부 차관보

▲정부는 6월22일자로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김성수 전 항만국장(사진)을 발령했다.

▲해양수산부 □이사관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김하진 △국립수산물검사소장 김창남 □서기관 승진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박원길

위배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광남개발주식회사(사장 김성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종식)

▲후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유형)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상욱)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삼)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규)

▲주식회사우창해사(사장 이봉태)

▲주식회사문원사(사장 김재극)

■개인

▲손팔원씨(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장)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조우연씨(전 한국해양오염방재조합 예선사업본부장)

■ 한국어항협회는 제2건국운동 자체실천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책 기증하기 운동'을 협회 임직원 및 협회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전개, 도서 300여권을 수집하여 6월7일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에 전달했다.

항만설계에 경제성검토제 도입

성과금 부여 등 건설예산 절감방안 마련키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예산절감을 위해 항만설계에 경제성검토제도(VE)를 도입하고 시공평가시 성과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기술적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항만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 내재돼 있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만건설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항만건설예산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팀을 최근 구성한데 이어 내달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종합대책에서 적정규모 이상의 항만설계에 경제성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실시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공사수행에 따른 예산절감시 성과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시공평가에 공사비 절감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기술현장적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이버항만기술정보센터구축으로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항만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공사별 담당제 실시로 설계변경 등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대형 허브항으로 육성키 위해 올부터 오는 2009년까지 약 18조원, 2010~2019년까지 19조원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설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처럼 막대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같은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8개 무역항 개발계획 수정
장기항만기본계획 수립키로

부산·인천 등 전국 28개 무역항에 대한 장기항만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항만여건 변화 및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키 위해 전국 28개 무역항에 대해 장기항만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달중 기본계획용역에 착수, 내년 7월 용역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동량이 지난해 7억8천만톤에서 오는 2011년에는 14억3천만톤, 2020년엔 19억9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항만별 기존 항만기본계획을 재정비·보완해 2011년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항만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항만개발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기존항만의 경우 내년까지, 신항만은 오는 2011년까지 항만개발계획이 마련돼있으나 개발계획에 향후 물동량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존항에 대해서는 항만개발계획을 대폭 조정하고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항은 항만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키로 했다.

또 항만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조정으로 투자비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항만개발 투자비 소요규모 등을 산정키로 했다.

노후항만·배후지 재개발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노후항만시설과 배후부지 등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항만의 25%이상이 60~70년대에 개발돼 노후화와 항만여건변화로 토지 및 항만시설의 비효율화가 극심함에 따라 전국 노후항만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안벽, 방파제 등 노후항만시설의 시설정비와 함께 해양공원조성 등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한편 부지협소로 항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배후부지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최근들어 선박의 대형화로 일부항만이 선박접안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주변 항만시설부지를 매립,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활용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인 개발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어항청소선 소식

7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7. 5~9 7.13~17 7.19~23	외연도 오천, 남당 격포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7.13~24	전장포, 원평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7. 1~3 7.12~15 7.26~31	풍남 내발 녹동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7. 5~10 7.19~24	맥전포, 신수 삼천포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7. 5~10 7.19~31	고현, 성포 통영, 비진도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7.5~10 7.19~24	축산, 창포, 노분 축변, 경정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7. 5~10 7.19~24	거진, 대진, 아야진 속초, 덕산, 장호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닥사랑 나라사랑 우리모두 앞장서자
남 모르게 버린 오물 나 모르게 오는 피해

어항공사는 현행 계약방법이 타당

계약방법 전환은 석산확보 곤란·부실시공 초래·하자한계 불분명 국가자원 낭비·실업발생·중소기업 연쇄도산 등 **사회문제 야기**

한국어항협회 시공업체간담회 결과 당국에 건의

최근 계약당국에서 어항공사 계약제도를 거론, 차후 수의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항시공 관련업체에서는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시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공업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어항시공업체 대표들은 수의계약이 폐지될 경우 동일구조물에 대한 시공업체가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석산확보, 부실시공, 공사지연, 민원문제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어항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어항공사가 경쟁입찰로 전환되면 석산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중공사의 특성상 하자한계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소재 시비와 국가자원낭비, 계속공사를 전제로 한 설계 이외의 투자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어업인의 피해를 초래할 경우 책임전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6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공사계약제도와 관련, 시공업체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와함께 어항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소어항건설업체가 연쇄도산하는 반면 입찰자격이 대형건설업체와 외국기업으로 편중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국어항협회는 어항공사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유가 이와같이 있으므로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당국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신규공사에 한해 다각적인 기준에 의거 시범적으로 계약방법을 전환하되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태풍 12개 발생 3~4개 영향

장마는 7월 중순경 끝날 듯

올여름 기상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특히 태풍은 평년보다 많은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태풍 발생 수는 평년의 28개보다 적은 24개 정도가 되겠으나 여름철 태풍 발생 수는 평년의 11.7개와 비슷하겠고, 7월부터는 태풍의 경로가 다소 북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다.

따라서 올여름 우리나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태풍 수는 평년의 2.4개보다 조금 많은 3-4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빠른 6월 중순후반에 남부지방으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으며 평년보다 조금 이른 7월 중순 후반에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상재해의 대부분은 주로 장마철에 나타나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시 동반되는 강한 비바람과 해일 및 높은 파도에 의해 발생되므로 여름철 악기상에 대한 피해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상위성이 없을 때는 태풍의 발생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발생여부를 기상위성에서 보내오는 구름사진 등에 의해 즉시 알 수 있고, 또 태풍의 발달과 쇠약 상황 및 이동경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태풍의 메커니즘도 상당히 규명되어 있어, 태풍 수치예보의 정확도도 많이 향상되어 있으며 진로예보도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특히 태풍은 Life time이 길어 태풍의 동태에 따라 방재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있다. 따라서 태풍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중호우는 태풍과는 달리 그 메커니즘이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전예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재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방재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상습지역은 여름 우기 철에는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항상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록 조그마한 태풍이라도 일단 내습하면 일차적으로 해안지방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해안의 항만공사 등은 가능한 한 태풍시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웨드 제공〉

북한항만 개발진출 방안모색
나진항컨부두 내년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의 북한항만개발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민간기업의 항만개발분야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 북한의 주요 항만개발계획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항만개발분야의 경우 현대의 북한 서해공단조성 등으로 여타분야 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빠른 속도로 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항만시설정비 및 확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능사업을 검토중이다.

이를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나진항 다목적 컨테이너 부두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중기적으로는 남포항과 송림항, 중장기적으로는 청진항과 선봉·흥남·원산항 등의 개발사업을 참여가능사업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측이 아직까지는 민간경협을 선호함에 따라 민간차원의 개발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비영리공공법인으로 단기간의 투자비회수를 감안치 않고 정부를 대신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민간기업을 참여가능 시행자로 꼽고 있다.

공유수면매립 환경금 부과

민자유치 대상사업 확대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해양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금을 새로 부과하고 해양산업부문의 민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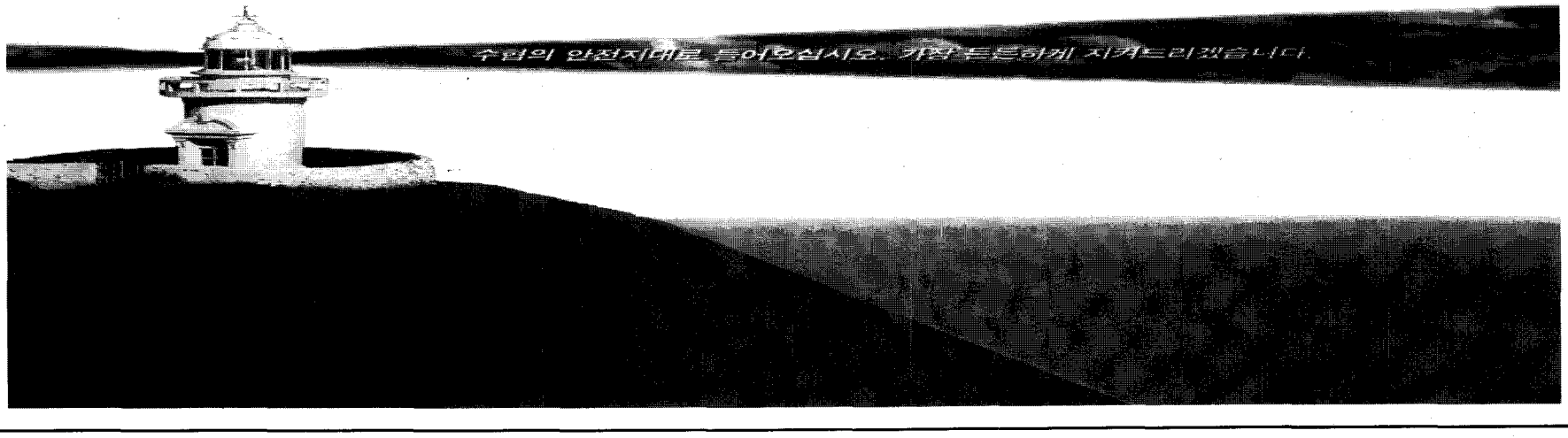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4-5%,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5-6.5%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연구투자비도 선진국 수준인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10%수준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규투자재원발굴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키 위해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점사용행위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신설, 이를 해양환경개선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국가재정부담완화를 위해 민자유치대상을 그동안의 안벽 등 부두시설 위주에서 어항, 여객터미널, 해양관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부대사업허용 등 민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조합
수협공제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건·강·하·게·삽·시·다

냉 방 병

소화불량 · 신경통증세 나타내
에어콘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여름철에 감기 소화불량 신경통 요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특히 에어컨의 냉방상태에서 오는 병을 냉방병이라고 한다.

이 병은 1976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 집회에서 집단 발생하여 '재향군인병'이라고도 하며 균종이나 증상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리하는데 하나는 균에 노출된 후 보통 36시간 정도 이후에 감기증세와 비슷하게 고열 두통 간혹 기침과 인후통 설사 흉통 등이 동반되는 폰티악열과, 두 번째로 폐나 간장 신장 소화기계 신경기계 등의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레지오넬라병으로 구분된다.

이 질병의 병태 생리학은 계속 연구 중이지만 밝혀진 바로는 여름철에 활발하며 남성보다는 노출이 더 심한 여성에 많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예를 들면 노인, 당뇨병환자, 항암치료 중인 사람, 신장이식 수술자 등)에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통 감염경로는 공기매개성이므로 에어컨이나 가습기 증류기나 또는 공장의 연삭기 등에 오염된 균이 수포나 먼지 등을 통해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사무실이나 최근 컴퓨터 보호를 위해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산실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냉방으로 인한 습도의 감소 체온조절 기능의 저하, 외부 온도와의 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본 증세의 예방책으로는 에어컨이나 가습기 증류기 등의 청결한 사용, 특히 에어컨의 처음 사용할 때 내부 필터 등의 청결 등과 외부와의 잦은 환기가 필요하며 면역체계가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냉방시설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5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몸을 너무 노출하지 않게 적당한 체온유지를 위한 옷을 입어야 하며 30분~1시간마다 한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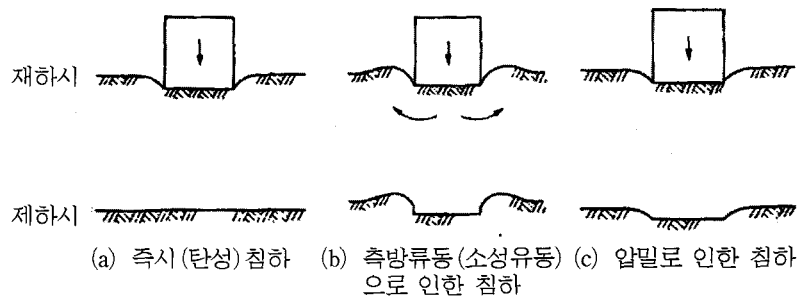
감기 증세로 생각하고 자가치료를 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이런 '냉방병'의 경우를 생각해서 언제든지 그런 증세를 발견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적절한 치료로 병세의 악화를 막아야 장차 예방적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44〕

第4章 地盤改良工



(a) 즉시(탄성)침하 (b) 측방류동(소성유동)으로 인한 침하 (c) 압밀로 인한 침하

그림 4.1.2 부분재하를 받는 지반의 침하

② 압축성의 개선(압밀도의 촉진 등)

점성토의 연약지반에 있어서는 특히 압밀로 인한 침하와 측방류동으로 인한 침하가 공사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쳐서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체로 이들 침하·변형을 완전히 방지하는데는 많은 공사비용과 장기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기 구조물의 형식, 중요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침하나 변형을 허용하여 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압축성의 개선이란 압밀침하와 같은 압축변형의 방지에 대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으로 원지반을 비압축화하거나 혹은 압밀의 촉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

③ 투수성의 개선(누수방지, 차수 등)

흙은 토립자, 물, 공기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반속 흙의 간극은 많든 적든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토중수가 공사의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 지반속을 이동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림 4.1.3은 토중수의 이동양식과 그때에 생기는 문제점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투수성의 개선은 이와같은 토중수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원지반의 불투수화나 토중수압의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동적특성의 개선(액상화의 방지, 진동의 경감 등)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지진시에 지반의 액상화가 생긴다. 또 지진, 교통하중 등의 동적응력에 의한 지반의 진동이 구조물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거나 진동공해를 일으키는 일도 있다.

동적특성의 개선은 이와같은 동적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원지반의 액상화 방지나 진동성상의 개량 등 내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공법의 선정

연약지반을 대상으로한 공사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이들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많은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대체로 구조물의 시공상 및 사용상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정도까지 영향을 허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는가는 구조물의 사용목적, 중요성, 공사기간, 경제성 및 환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지반개량공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구조물, 지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기본적 방침을 결정한다. 이 기본적인 방침은 이후의 공사와 완성후 구조물의 양부를 좌우하므로 중요하다.

그림 4.1.4는 지반개량공법선정의 표준적인 검토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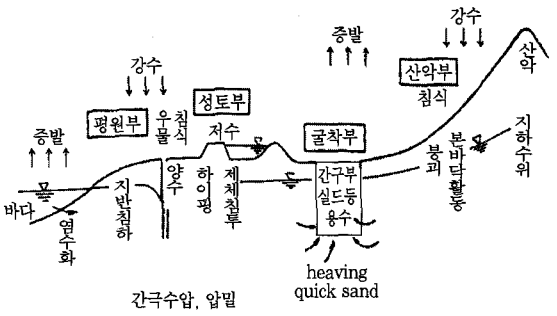


그림 4.1.3 토중수의 이동양식과 그 문제점

♣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

거래조건 등 철저한 확인과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늘면서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인 다음(daum)과 공동으로 1999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인터넷 이용자 2,5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6%가 금년 상반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해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만이 큰 항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지 않고 불충분하다, 주문에서부터 제품을 인도 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 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문의 또는 불만 제기에 대해 사업자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 제품 배송료가 불만스럽다 등이다.

한편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전체 소비자들 가운데 15.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90명이 밝힌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한 것과 다른 불량제품의 배송

〈사례〉

김 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2만원을 지급하고, 그래픽카드를 주문함. 그러나 배달을 받아보니 광고 내용과 달리 화면이 깨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함.

■반품과 환불의 거절 및 회피

〈사례〉

모 도서출판중앙회에서는 마치 문화진흥을 위해 출연한 기금으로 국어사전을 출판하여 무료로 보급한다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고, 소비자가 단지 세금 명목으로 1만5,000원만 입금하면 배송하겠다고 선전함. 김 모씨 도 그 광고의 내용을 믿고 주문을 해서 택배비 5,000원까지 부담하며 책을 받아봤으나 겉보기만 화려해 보일 뿐 내용은 조악하여 사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폐쇄

〈사례〉

오 모씨는 인터넷 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습을 가정에서 듣기 위해 요금을 입금하고 수강 신청을 함. 2~3일간은 제시간에 강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 예고없이 학원 사이트가 사라짐.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배달하지 않은 경우

〈사례〉

권 모씨는 인터넷 경매에서 7만7,000원에 휴대용면도기를 낙찰 받음. 경매회사 통장으로 경매대금과 운송비를 온라인 입금시켰으나 상당 기간이 지났어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으며, 업체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해도 아무런 회신이 없음.

■이용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청구

〈사례〉

한 모씨는 외국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맛보기는 무료이며, 다만 신원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선전만을 믿고 호기심에서 카드번호를 게재한 후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한 두 번 이용한 적이 있음. 그러나 두 달 후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60달러가 청구되어옴.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내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측도 대금을 청구한 가맹점이 해외의 인터넷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위한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일단 청구된 대금을 물고 카드를 폐지함.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함' 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다.

★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제품의 가격, 사양, 원산지, 보증조건 등과 같은 제품 정보와 배송기간, 배송료, 배송방법, 구매취소, 교환, 반품, 환불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자세히 밝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대개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화면을 클릭함으로써 한번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일단 주문이 되고 나면 취소, 환불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업체일수록 여러 단계의 주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참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상담전화 : (02)3460-3284)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생활정보